

취업한파 뚫는 답은 결국 '기술' 폴리텍대, 'U턴 입학' 역대최대

대졸 U턴 25.2%, 입학생 4명 중 1명 자격·실습 갖춰 현장형 인재 직행 문과·공시 준비생 직무전환 성공 디지털·자동화·융접 기술로 재도약 AX 과정 신설, 전 세대 플랫폼 확대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극심한 취업 한파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선택으로 '취업 대박'을 터뜨린 이들이 있어 주목된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재입학해 실무역량을 쌓거나 기술을 배워 직무 전환을 꿈꾸는 이른바 'U턴 입학생'들이다.

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의 U턴 입학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5년 25.2%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입학생 4명 중 1명이 대졸자 출신 U턴 입학생으로, 단순 재입학이 아닌 취업 한파를 뚫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 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를 수료한 이설훈(36) 씨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일본어 교사를 준비했지만, 기술 분야로 진로를 선회했다. 디지털트윈과 가상 시운전 기술을 익힌 그는 스마트팩토리 기업 경희정보테크에 입사했다. 이 씨는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 무기"라고 말했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바이오메디컬소재과(학위과정)에 입학한 한규태·정가는 씨 역시 각각 일어일문학과, 패션디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한규태 씨가 재학 중 원료 성분 추출 실습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

자인 전공자다. 강도 높은 실습을 통해 전공 장벽을 넘은 이들은 의료기기 기업 인코아와 메타바이오메드 연구직에 조기 취업했다. '문송(문과라 죄송)'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무색하게 한 사례다.

전북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학위과정) 조현훈(30) 씨는 6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폴리텍에서 공조냉동·에너지 관리 등 산업기사 자격증 5개를 취득했고, 광양 포스코 정련기계정비 파트 공채에 합격했다. 그는 "폴리텍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사다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포항캠퍼스 제철시스템과 남우정(33) 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제네시스 의장부)에, 전기제어과 이가은(23) 씨는 SK하이닉스에 각각 입사했다. 이들은 "기업이 원하는 건 화려한 스펙보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술교육의 문은 국경과 연령을 가리

지 않았다. 성남캠퍼스 전기과에 재학한 호어민(23) 씨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 청년으로, 폴리텍 다숨고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한 그는 엔지니어링 기업 인티스에 취업하며 '코리안 드림'을 현실로 만들었다.

충주캠퍼스 특수용접과(중장년특화과정) 김광수(44) 씨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다. 기능장 자격 취득과 함께 전국 용접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을 수상했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기술로 갚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대졸자 대상), 전문기술과정, 중장년특화과정, 이주배경구직자과정에 더해 2026년 AX(AI 전환) 과정을 신설한다. 청년층뿐 아니라 전 생애 전 계층을 아우르는 기술교육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임금체불 근절·대지급금 회수 강화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 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멸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면 변제금 회수 방식은 오는 5월부터 국제채납 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 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하고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축산 오염원 관리·물 이용 체계 개선

농식품부, 기후부와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부(에너지환경부)가 4일 '농축산 오염원 관리 및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농업정책을 환경정책과 연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는다.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



경남 창녕의 한 축산악취 저감시설에서 가축분뇨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

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66만호 돌파

작년 337GWh 절감, 탄소 15만톤 감축 누적 522억 경감, 세대당 연 4만9000원

한국전력공사가 시행 중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 세대가 지난해 166만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한전은 2022년 도입한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 세대가 2025년 기준 166만호를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월 직전 2개월 동월 평균 대비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액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참여 세대가 절감한 전력량은 총 337GWh로 집계됐다. 이는 총주시 전체 가정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컸다. 약 15만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이는 소나무 약 23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등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경제적 혜택도 가시적이다. 한전은



한전 깃발사진. /한국전력공사

지금까지 총 522억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줬으며, 세대당 연평균 4만9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전력 수요 감축을 통해 신규 전력망 건설과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 전체 전력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생활 속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변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절약 행동은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후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성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세대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AI를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업인 자녀 주거안정' 장학사업 지속

농협재단, 신규 410명 선발

농협재단이 올해도 '농업인 자녀 주거안정'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협재단 장학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농협장학관은 농업인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주거를 지원해 경농업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이 장학관에는 2025년까지 총 6964명의 대학생이 거쳐 갔으며 누적 지원금은 454억 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 입주생은 410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약 40억 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부모 곁을 떠나 새로

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농협 장학관이 '서울 속 작은 농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서울시 강북구 소재 농협 장학관에서는 2026년 신규 입주 생활생을 대상으로 새학기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단체생활 안내와 농업·농촌 이해 제고 특강, 장학관 봉사단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입주생은 연간 100만 원의 비용으로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농축산물로 제공되는 구내식당은 1식 1000원에 하루 3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생 납부금은 전액 농협재단 기부금으로 처리돼 농촌 현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